Interview

ERP와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정확한 회계 정보 제공

제6회 투명회계대상 수상

박 현 기
(주)동서 대표이사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투명경영이 시대적인 대세(大勢)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기존 회계투명성 평가 모형에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포함시켜 투명회계대상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제6회 투명회계대상 시상식에서는 식품용 포장재 및 포장용기와 녹차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동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박현기 (주)동서 대표이사를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주)동서가 추진해 온 투명 경영 노하우를 전해 들었다.

- 편집자 주 -

"(주)동서를 건실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회사 임직원들과, 고객, 투자자, 그리고 투명회계 실천을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외부 감사인을 비롯한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좀 더 나은 투명경영을 실천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박현기 사장은 동서식품(주)의 마케팅 영업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쳐 2004년 3월 (주)동서 대표이사로 취임,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75년 5월에 설립된 (주)동서는 2005년 매출액 2,200억원과 당기순이익 668억원의 성과를 달성한 코스

닥 상장 법인이다.

지난 해 자기자본비율 87.1%, 부채비율 14.8%, 차입금 의존도 0.1%를 기록,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 등 우량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재무분석 점수를 받아, 금번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됐다.

"투명경영은 회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과 고객, 투자자를 포괄한 회사 전반에 걸친 한 차원 높은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박현기 대표이사.

그는 투명경영은 사회가 요구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고객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주)동서는 지난 수 십 년간 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계속 외부 전문경영인 출신의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및 상근 감사 들이 회사의 경영 전반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타당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 중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투명 경영을 추구해 왔다.

또한 사업부문 책임 경영 체제하에 회계의 투명성과 공시의 정확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ERP를 도입했으며 2004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2004년 말에는 ERP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시켜 회사의 경영 정보를 통합 운영했다.

현재까지도 (주)동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 차원의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주)동서는 좀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완료하고 전사적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산화를 구축 했다. 이로 인해 (주)동서는 향후 전사 차원의 통제기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한층 더 향상 될 것으로 기대, 평가받고 있다.

(주)동서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노력은 성실납세의 실천으로 이어져, 2000년 3월에 국무총리 표창을, 2006년 3월에는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도 했다.

"투명 경영 달성을 위한 (주)동서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박현기 사장은 향후 "투명경영이 (주)동서의 '기업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제6회 투명회계대상 수상을 계기로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전도기업으로의 노력을 다할 (주)동서.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하겠다"고 포부를 전하는 (주)동서와 박현기 대표이사에게 업계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ko

박초혜 기자